

제157호

발행일 : 서기 2022년 11월 28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ngu@naver.com

상락 충렬공 歲一祀와 사적비, 단모부비 건립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해도 종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신 종친, 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은 대종회 연중행사중 하나인 안동의 상락 충렬공 중시조 고비위(考妣位) 향사를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백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200여 우리 안동김문 후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창홀(唱笏)에 맞춰 엄숙하고 경건하게 충렬공의 위업을 추모하고 그 음덕을 함께 향유하며 한 혈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제향에 앞서 능동재사 광장 한편에 '상락군개국공능동사적비(上洛郡開國公陵洞事蹟碑)'를 세워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후손들에게 충렬공묘소 수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이고, 또 재사 좌측에는 충렬공께서 상락군개국공 공작 작위(公爵爵位)를 받으신 것에 대한 동안거사 이승휴의 축하 글 '단모부(旦暮賦)'와 충렬공께서 답하신 '단모부 답부(答賦)'에 대한 비를 건립 하였습니다.

충렬공께서는 역사적으로 무장의 면모로 각인되어 있지만 고려 최고의 학자와 운(韻)에 맞춰 주고받은 문장에서 유·불·선, 병법까지도 통달한 학문적 지위도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시조이신 상락 충렬공의 명성과 유적을 찾아 조명하고 복원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며 애쓰고 있는 점을 이번 제막식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가지 없는 잎 없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조상을 현양하는 일을 지속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종친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번 상락군개국공 능동사적비와 단모부비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건립위원님들과 거금의 비용 일체를 후원해주신 익원공파 수원참의공 종중과 서운관정공파 하당공종친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종친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이 됩니다. 우리 안동김문 종친님들의 모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명년에는 더욱 발전적인 변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석한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8.27.~2022.11.26.)

◎ 임원회비(회장)

• 100만원 : (翼)석한 대종회 회장(광진)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提)태헌 문영공종회장(제천), (大)태권 파종회장(光州)
(提)용식 수도권회장(의정부), (提)태선 부회장(성동)
(按)형남 파종회장(강남), (翼)재교 안동종친회장(안동)

◎ 임원회비 (이사)

• 10만원 : (郡)형묵 대종회이사(청주), (郡)장묵 파종회총무이사(부천)
(文)광묵 파종회총무이사(강서), (文)윤식 대종회이사(양주)
(大)태종 파종회총무이사(光州), (提)봉희 대종회이사(노원)
(提)덕응 대종회이사(공주), (按)현수 파종회사무국장(성동)
(按)태윤 대종회이사(세종), (按)원희 대종회이사(동작)
(按)용주 대종회이사(용인), (按)범식 대종회이사(강남)
(翼)근식 대종회이사(동대문), (翼)선희 대종회이사(당진)
(翼)상묵 대종회이사(안동), (翼)태강 대종회이사(안동)

◎ 통상회비(일반)

• 20만원 : (典)양천종중 총무 준회
• 5만원 : (密)운홍(하남), (翼)태곤(청주)

◎ 찬조금

• 20만원 : (郡)괴산 · 음성종친회

◎ 평생회비

• 20만원 : (翼)경희(부여)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종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인) - 2만원 이상
• 찬조금(개인 및 단체)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종회

회비 조정 안내

지난 6월 8일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 회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23년도분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회장 2백만원 • 부회장 3십만원 • 이사 2십만원
• 평생회비 3십만원 • 통상회비 3만원이상 • 찬조금 무제한

156호 16페이지
회비란 정정

• (군)만회 의정부 - 통상회비 30,000을 50,000원으로 정정 - 편집시 오타
• (익)대진 남양주 - 통상회비 납부 6월 28일 20,000 - 지로영수증 지연으로 누락.

중시조 충렬공 세일사 봉향(中始祖 忠烈公 歲一祀 奉享)



2022년 11월 2일(수)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동에 소재한 충렬공(휘 방경) 중시조 묘소에서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회장을 비롯한 경향각지의 임원 종친가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인년 세일사를 봉향하였다.

충렬공(휘 方慶, 1212~1300)의 자는 본연(本然)이고 시호는 충렬, 첨의중찬과 첨의령에 올라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오등작의 으뜸인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공작에 이어 식읍 3천호, 식실봉 3백호를 받으시고 홍서하신 후에는 충선왕의 명에 의해 신도비를 세워 고려 최대 안사공신의 예우를 다하였다.

구름한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후손들은 묘소앞에 도열하여 진설한 제수와 펄럭이는 양장을 바라보며 집례를 맡은 문온공과 윤만회장의 창홀에 따라 삼헌관을 비롯한 제집사 등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해 맡은 의식을 진행하였다.

성회 대종회부회장의 직일강평과 대종회장의 인사말씀을 끝으로 묘전에서 합동 기념촬영을 한후, 음수재 마당에 차려진 식탁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풍산을 회곡동으로 이동하여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님 단소에 시제를 봉향하며 모든일정을 마쳤다.

금년에도 안동종친회에서 제수를 봉납하였으며, 안동부녀회에서 는 밤이 늦도록 전을 부치고 제수를 고이면서 정성껏 제수를 준비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신평양조장 용세 고문께서 제주를 보내주셨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굶은 일을 마다않고 능동과 회곡동 주변 환경정리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안동종친회 회원과 서울에서 미리 내려와 시제 준비에 수고를 해주신 종친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따뜻한 날씨 만큼이나 종친 모두가 한 혈족임을 확인하는 뜻 깊은 날이 되었다.

귀가 길에 대종회장께서 준비한 미니담요, 안동간고등어를 나눠 드리면서 내년을 기약하고 작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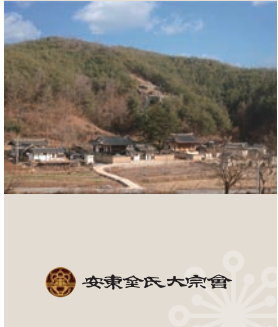
22년 안동 시제 분방기

直日	時到	奠爵	奉爵	司樽	奉爐	奉香	贊引	陳設	大祝	執禮	山神	終獻官	亞獻官	初獻官	회고 냉평국대부인 단소	終獻官	亞獻官	初獻官	안동 충렬공 묘소	二〇二二年 安東時祭 分榜記
성회聖會	형식亨植	재술在述	장묵張默	용주容周	평응坪應	재구在九	태신泰信	재교在敎	영환榮煥	윤만潤萬	흥식興植	태형泰亨	규원奎元	영수榮秀		태영泰永	승남勝男	석한錫漢		
(翼)대종회 부회장	(翼)파종회 이사	(翼)안동 부회장	(郡)대종회 이사	(按)대종회 이사	(提)대종회 이사	(郡)대종회 이사	(翼)대종회 이사	(翼)안동종친회장	(文)대종회 고문	(文)파종회장	(典)파종회장	(副)철원종친회장	(提)파종회장	(翼)파종회장		(按)파종회 부회장	(郡)광탄종친회장	대종회장		



중시조 상락 충렬공 사적비 및 단모부비 제막행사

상락공 능동 사적비 & 단모부비



2022년 11월 2일(수) 충렬공(휘 방경) 중시조 제향에 앞서 오전 10시 안동 묘하 능동재사 광장에서 김석한대중회장을 비롯한 250여 중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문(碑文)을 팜프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상락군개국공능동사적비(上洛郡開國公陵洞事蹟碑)’와 ‘단모부비(巨幕賦碑)’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상락군개국공능동사적비’는 충렬공 중시조 묘소를 수호한 기록을 관련문헌을 통해 년대별로 나열한 것으로 충렬공께서 1300년(충렬왕26) 개경 백목동 앵계리에서 89세로 홍서하시자 유언에 따라 장지를 고향인 이곳 안동 녹전면 죽송리에 모셨다. 이후 능동(陵洞)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700여년의 긴 세월속에 외후손의 협장과 묘소 실전설도 전해지고 있으나 잦은 외란 등 내우외환으로 묘소 관리에 부침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전해진 문헌으로 보아 실전설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사적비문은 사무총장 태영이 짓고, 전면 글씨는 서봉 김사달 박사의 예서체를 발용위원이 집자해서 건립한 것이다.

이날 제막식 순서는 참석 임원소개, 선조님에 대한 묵념에 이어서 대중회장은 사적비와 단모부비 건립비용 일체를 후원한 익원공과 수원 참의공중중을 대표해서 태용회장과 서운관정공과 하당공중친회를 대표해서 덕영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말씀과 이어서 태영사무총장의 사적비 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단모부 비’는 충렬공 중시조께서 1295년 8월에 오등작의 으뜸인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공작작위를 수여받은 것에 대한 축하의 글로 고려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문인 동안거사 이승휴(李承休)가 서문과 함께 부를 지은 것으로 충렬공께서는 운에 맞춰 답부를 지은 명문이다. 비 전면은 충렬공의 답부를 후면에는 동안거사의 단모부를 새겼다.

제막식이 끝나고 충렬공기념사업회 영환회장은 단모부와 답부에 대한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마치고 시제봉행을 위해 묘소로 이동 했다.



上洛郡開國公 陵洞 事蹟碑文

안동 녹전면 죽송리 능동은 안동김씨의 성지이며 중시조이신 상락 충렬공의 묘가 있는 곳으로 영서(永逝)하신지 어언 7백여 성상이 흘렀다. 공의 휘는 방경(方慶)이고 자는 본연(本然)으로 고려 최고위직 첨의령(僉議令)에 올라 상락군개국공 공작(公爵)의 작위와 식읍 300호 식실봉 300호를 받으시고 1300년 8월 16일 노환으로 개경 백목동 앵계리에서 홍서(薨逝)하셨다. 유언에 따라 9월 초3일 예안현 지례촌에 예장드리니, 선충협모정난정국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를 충렬(忠烈)로 내리고 왕명에 의해 신도비를 세웠다. 묘지(墓誌)는 이진(李璉)이 짓고, 봉분은 고려시대 묘제의 특징인 장방형 호석을 돌렸으며 상석 1기, 구비·신비 각1기, 동자석 1조, 문인석 1조, 망주석 1조를 배치하여 고졸(古拙)하면서도 엄숙하다. 1310년 3남 순(恂)이 선친(先親)의 묘에 제사를 올리고, 1319년에는 아들 영후(永煦)를 대동하여 성묘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1350년 안진(安震)에 의해 상락공 행장이 간행되고, 이후 고려왕조가 무너지면서 충신들은 두문동을 비롯 벽지로 은둔하였고, 상락공 묘소를 돌보는 묘하의 후손들도 점차 멀어져 갔다.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세종대(世宗代)에 이르러 1421년 5대손 경력(經歷) 명리(明理)가 안동에 와서 안진(安

震)이 엮은 행장을 정이오(鄭以吾)의 감수를 받아 안동부사 최개(崔開)에게 기록하게 하였다. 1467년 7대손 질(礪)이 경상감사에 부임하였고, 1480년에는 6대손 자행(自行)이 경상감사에 부임하였다. 1498년 8대손 예안현감 예생(禮生)이 묘갈을 세웠으며 1499년 8대손 수동(壽童)이 경상감사에 부임하였다. 1526년 8대손 희수(希壽)가 경상감사에 부임하였고, 1534년 광산 김효로(金孝盧)가 졸하자 상락공묘소 동원에 장사 지냈는데 김효로는 상락공의 사위 권윤명(權允明)의 만사위 김진(金稹)의 후손이며 광산김씨 예안파 오천입향조로 상락공의 7대 외후손이다. 1567년 10대손 평안감사 덕룡(德龍)이 행장을 판각제책하여 반포하였음을 13대손 구정(九鼎)이 부기하고 1580년 안동김씨 성보(姓譜)에 상락공의 묘소를 예안현 지례촌 속칭 능동으로 기록하였다. 11대손 수(睟)는 1588년 경상감사에 부임하였고 1591년 재임하였다. 이해 12대손 방(昉)이 경차관으로 안동에 왔다가 광산 김부륜(金富倫)으로부터 상락공묘소를 전해 듣고 참배하였으며, 1593년 광산 김해(金垓)가 졸하여 김부륜에게 장지를 상락공묘에 인접하여 정했다 고하자 김부륜은 협장(挾葬)을 우려했으나 그대로 장사지냈다. 임진왜란으로 묘소가 황폐화되고 후손 예생(禮生)이

다음페이지 계속

세운 묘갈도 파손되어 1602년 12대손 참봉 경건(慶建)을 비롯한 후손들이 외후손 광산 참봉 김기金(圻) 생원 김평(金坪) 등과 협력하여 외후손 경상감사 이시발(李時發)이 묘갈문을 짓고 참봉 조우인(曹友仁)의 글씨로 비석을 세웠다. 이 비문 탁본의 원본이 일본 교토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1603년 관청에서 예안의 상락공묘를 비롯한 충현(忠賢)들의 훼손된 묘를 봉식하고 초목을 금지시켰으며, 1607년 후손 경건(慶建)이 김해(金垓)의 묘가 상락공묘에 매우 가까워 12대손인 시현(時獻)·대래(大來)·계도(繼燾) 등과 이장을 협의하였으나 지체되어 이루지 못했으며 안동부사 정구(鄭逯)는 13대 외조인 상락공묘에 제사를 올렸다. 1609년 12대손 시양(時讓)이 경차관으로 와서 상락공묘에 제사를 올리고 1625년 13대손 치(緻)가 경상감사에 부임하여 상락공묘에 제사를 올렸다. 1622년 후손 시양(時讓)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12대손 삼가현감 효건(孝建)·참봉 경건(慶建) 등 후손들과 함께 상락공묘에 제사를 올리고 김해(金垓)의 묘가 상락공묘에 너무 근접해 있어 김해의 아들 김광계(金光繼)를 불러 이장을 권유했으나 불응하자 중앙의 12대손 자점(自點)과 외손 한준겸(韓浚謙)·윤방(尹昉)을 대표로 사헌부에 청원하였다. 1627년 헌부에서 이장하라는 명령서가 경상감영에 하달되자 감사 시양(時讓)은 파묘하는 일에 12대손 영남(英男)을 감독자로 임명하고 김효로(金孝廬)묘는 옮기지 말고 김해(金垓)묘만 옮기게 하여 그 후손들이 거음곡으로 이장하였고, 감사 시양(時讓)이 임기가 끝나면서 상락공묘에 제사를 올렸다. 1635년 회곡동에서 글자가 민멸된 상락공 유허비가 발견되었으며 1641년 후손 효건(孝建)은 상락공과 배위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의 합장여부를 상고할 기록이 없음을 한탄스러워했다.

1650년 13대손 상린(尙璘)의 주도하에 충렬공 위토를 매수하여 매년 10월 상순에 향화를 받들게 되었다. 1665년 13대손 휘(徽)가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상락공묘에 제사를 올렸고, 1685년 14대손 양좌(良佐)는 내외손 66명을 모이게하여 상락공묘에 제사를 올리고 회곡 유허와 고산정 상락대를 탐방한 종회기(宗會記)를 남겼다. 1698년 14대손 세익(世翊)이 경상감사에 부임하였으며 1733년 15대손 유(維)가 안동부사에 부임하여 상락공께서 지은 영호루의 남은 시판을 새로 판각하여 계관하였고, 1765년 관청에서 이상정(李象靖)이 쓴 유허비를 회곡동 안산에 세웠다. 1799년 18대손 진정(鎭鼎)이 안동영장에 부임하여 상락공 유허에 투장한 묘를 이장시켰으며, 1825년 영서

(嶺西)에서는 족보간행을 맡고 영남(嶺南)에서는 능동재사 건립을 맡아 22대손 종락(宗洛)의 상량문으로 준공하고 회곡동 냉평국대부인의 단소에 제사를 올렸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의성 사촌과 안동 소산 후손들의 주관에 의해 묘역이 관리되었고 22대손 진중(振鍾)의 상량문으로 능동재사를 중건하였다. 1934년 서울 창신동에 종약소를 창립하여 묘소수호를 체계화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침체를 겪다가 1970년 재사 사랑채 솟을대문 관리사를 중건하고 22대손 사달(思達)의 글씨로 신도비를 건립했다. 홍수로 유실되었던 영호루의 상락공 시판을 24대손 윤희(崙會)와 창회(昌會)의 고증으로 안동군청에서 새로 계관하였다. 1979년 묘지석을 발굴 탁본하고 후손 윤희(崙會)의 필체로 복제후 묘전에 매설하였으며, 1984년 24대손 창신(昌信)이 기증한 목재로 관리사를 중건하였다. 1992년 태형(泰亨) 회장은 능동묘역 제절확장 및 진입로를 석재로 시공하고, 1994년 회곡동 냉평국대부인 묘역제절을 확장하였다. 2001년 상조(相祚)회장은 능동재사의 음수재와 영정각을 중건하고 24대손 창회(昌會)가 상량문을 지어 준공하였고 2008년 남응(南應)회장은 상락공 영정을 새로 제작하여 영정각에 봉안하였다. 2009년 상락공묘역 사초시 묘지석을 발굴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보관하고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2012년 충렬공탄신 800주년을 맞아 봉회(鳳會)회장은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2017년 석한(錫漢)회장은 능동의 묘소 사초와 회곡 냉평국대부인의 묘역 정화사업을 마치고 2018년 선영관리에 일조하기 위해 안동 송현동에 회관을 구입하였다. 2019년 능동재사 음수재의 지붕과 신도비각을 동(銅)기와로 개수하고 2022년 능동 관리사를 개축하였다. 안동시 녹전면 능동은 상락 충렬공 김방경의 묘가 있어서 불려진 이름으로 안동김문의 성지이다. 이제 세대가 멀어지고 능동 묘소를 수호한 기록 또한 상고하기 어렵다. 백세(百世)의 정의(情誼)가 도타운 능동의 귀중한 자취를 후대를 위해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석한(錫漢)회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 태영(泰榮)은 관련문헌을 상고(詳考)하여 그 사실을 서술하고 전면(前面)은 후손 사달(思達)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사적비를 세운다.

서기 2022년 11월 2일

의원공파 수원 참의공종중 후원

안동김씨대종회 근수(謹暨)

단모부(旦暮賦) 병서(并序)

동안거사(動安居士) 이승휴(李承休)

옛 책에 이르기를, “만세가 지난 뒤라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대성인(大聖人)을 만난다면 이것은 조석 간에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되도다 이 말이여!

지금 새로 책봉된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 경조(京兆) 김방경(金方慶) 저하(邸下)는 원종(元宗) 11년(1270년)에 재상으로 들어가서 충렬왕이 즉위한 초기에 이르러 지위가 상상(上相)에 올랐다. 개경으로 환도하던 해에 불순하고 사나운 무리가 까마귀 떼처럼 강화(江華)에 모여들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도를 소굴로 삼아 여러 고을을 노략질하였는데, 바다를 의지하여 날뛰었기 때문에 일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이에 상국(上國)이 관군을 출동시켜 고려군과 합하여 토벌하라고 명하니, 공이 황제의 응중한 교지를 받들었다. 군대를 훈련시키는 법은 평소에 익히지 않았으나 두 나라의 군사가 모두 그 마음을 얻어 팔이 손가락을 부리듯이 하여 일거에 반군을 양 떼 쫓듯이 소탕하니 부녀자들이 나와서 그 개선을 환영하였다.

또 원나라의 원수(元帥) 혼도(忻都)와 함께 왜국(倭國)을 정벌하였는데, 수군을 통솔하고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건너가 황제의 위엄을 드날려 오랑캐 땅을 회유하고 무덕(武德)을 베풀어 큰 공을 세웠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고 전후(前後)의 공을 크게 기리어 동번제로도원

수(東藩諸路都元帥)에 임명하여 특별히 총애하였다. 이때부터 해마다 일본을 정벌하였는데 어느 전쟁이든 공이 통솔하지 않은 전쟁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전(海戰)과 육전(陸戰)에서 냈던 기발한 계책이 모두 국사(國史)에 실려 있다.

1295년(충렬왕 21년) 11월 12일에 안집사(安集使)가 전해 준 공의 편지를 삼가 받았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올해 84세가 되어 앞으로 더 바랄 것이 없건만 세자 전하가 스스로 생각하여 ‘나라에 공로가 있는 노인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이 내용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비답(批答)을 내려 나를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으로 삼았으니 실로 과분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공손히 꿇어앉아 그 편지를 받들어 읽고서 곧 그 일을 자세히 밝혀서 평하면, “우리 나라의 왕족(宗臣)과 재상(碩輔)으로서 중국에 사신으로 왕래한 자가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졌지만 도원수의 직임을 받은 자가 있었던가? 나는 듣지 못하였다.

공(公)이란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중에서도 으뜸 가는 작위이다. 밖으로 나가면 모든 제후 중에 으뜸이고, 천자에게 들어가면 천자 바로 다음이니, 그 등급은 감히 발돋움을 하고 바

라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간혹 때를 잘 만나 갑자기 출세하여 털 끝만큼의 전공(戰功)도 없으면서 장안의 제일 가는 권세에 빌붙어서 염치도 모르고 나아가 그 지위를 차지한 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니 진실로 귀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공 같은 분은 당대의 걸출한 패왕(霸王)의 영걸스런 기국을 지니셨으며, 충(忠)과 의(義)와 인(仁)과 용(勇)과 지(智)와 모(謀)를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 것이 없으시니 전쟁에 나가면 장수요 조정에 들어오면 재상이니, 동쪽으로는 일본을 정벌하고 북쪽으로는 중국에 사신으로 가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뱃머리에서 부서지고 아득한 북쪽 변방에서는 말발굽을 옮기기 힘들 정도였으나, 이처럼 험난한 때를 당하여도 문무(文武)를 겸비하여 걸출하게 우뚝 서서 분연히 펼쳐 나서서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사졸(士卒)들과 똑같이 고생하며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적에게 돌진하였다. 바다 밖의 왜국에 우리의 무위(武威)를 드날려 그들의 신복(臣服)하지 않은 죄를 토벌하여 천자에게 승전(勝戰)을 바쳤다. 사해(四海)의 황제가 헌함(軒檻)에 나와 물으니 지엄한 천자의 안전에서도 능히 대책을 설파하여 또다시 황제의 칭찬을 받았다. 소백(小伯)이 천하를 한 번 바로잡고 진후(晉侯)가 세 번이나 천자를 알현한 일도 어찌 이보다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훌륭한 공명(功名)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평탄하게 도(道)를 이행하여 삼달존(三達尊)에 이르러 녹야당(綠野堂)으로 물러났다. 이 때문에 임금은 황하(黃河)가 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솟돌처럼 평평해질 때까지 국가와 함께 자손 대대로 복록을 누리자는 맹서를 하였고, 온 나라 사람들은 아형(阿衡)만이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않았다고 감탄하였으니, 참으로 연세가 많아질수록 덕이 높아진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전하께서는 덕은 중륜(重輪)을 뛰어넘고 뜻은 오로지 나라를 감독하는 데 있었다. 어진 사람을 초빙하는 북을 울리고 착한 사람을 등용하는 깃발을 세워 인재 구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급급히 서둘러 마치 이렇게 해도 제때에 미치지 못할 듯이 구하였으니, ‘적합한 인물을 생각해도 이 사람뿐이고, 이름을 거론하라고 해도 이 사람뿐이고, 진실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추천할 사람도 이 사람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진실로 천하의 공언(公言)이니 어느 누군들 이 일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우리 폐하께서는 사람을 구할 때는 옛 신하를 구하고 선은 반드시 따르시어 기둥과 주춧돌 같은 대신(大臣)의 공로에 보답하기를 기약하시어 마침내 윤음(綸音)을 내려 상락군(上洛郡)에 봉하여 공(公)으로 삼으시니, 이는 후현(後賢)들이 나올 길을 넓힌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천하의 공변된 장려이니 그 누가 이 상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충렬공이 공작(公爵)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요행으로 공작이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니 장수[上壽]의 복을 주신 뒤에 그 몸을 강녕(康寧)하게 하셨건만 하늘은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 가장 높은 작위[上等]를 내려 그 지위를 존귀하게 하였다. 바라옵나니 공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순응하여 그 분수를 편히 여기고 그 영광을 누리옵소서. 앞에서 이른 ‘만세가 지난 뒤라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대성인(大聖人)을 만난다.’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다!

삼가 고부(古賦)를 지어 단모부(旦暮賦)라 하고 멀리서 상락공(上洛公)의 궤장(几杖) 아래에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 출처 「충렬공김방경자료집성」

단모부(旦暮賦) 동안거사 이승휴		단모부 답부(旦暮賦答賦) 상락공 김방경	
聖君誕作兮啓風雲 碩輔同升兮圖經緯	성군이 태어나니 풍운이 열리고 재상과 함께 조정에 오르니 경위를 도모했네	天地高下兮爲經 聖賢往來兮如緯	천지가 높고 낮음을 날줄로 삼으니 성현이 오고 감은 씨줄과 같도다
復赤忠兮相三韓 首黃扉兮纓萬彙	타고난 충성심을 다하여 삼한을 도우고 조정의 수상이 되니 만백성 편안하네	或行或止兮不失時 其出其處兮各以彙	행 하거나 그치는 것에 때를 잃지 않았으니 나가거나 물러설 때는 더불어 했도다
朝中朝兮奏膚功 路東路兮都元帥	중조(中朝)에 조회 가서 큰 공을 아뢰고 동로(東路)에 길잡이가 되어 도원수가 되었네	處則山林兮或江湖 出則卿相兮又將帥	물러서면 산림에 있거나 강호에 있었으니 나가서는 정승도 하고 장수도 하였도다
軍師百萬兮益辦多 春秋八十兮又過四	군사가 백만이 되어도 더욱 힘써서 준비하고 춘추가 팔십에 또 네해가 지났네	剝之無咎兮在六三 遯之好吉兮當九四	박취이 허물이 없음은 六三에 있으니 돈遯이 길하고 좋음은 九四에 있도다
神清氣壯兮身其康強 年高德邵兮人焉嘆美	정신은 맑고 기상이 굳세어 몸은 강건하고 나이 많고 덕 높으니 사람들이 감탄하네	唐高垂衣兮莫不稱 許由洗耳兮亦所美	요임금 팔짱 끼고 다스려도 칭송받았으니 허유가 귀 씻음은 또한 아름다웠도다
中宸圖奮兮篤不忘 東宮監國兮嘉致理	임금이 명성을 돈독히 하여 공을 잊지 않고 동궁이 나라를 다스리니 태평하고 아름다웠네	但復姓命兮忘其聲名 不必卷舒兮由乎亂理	백성의 명을 회복코자 자신의 명성 잊으니 나가고 물러섬 없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렸도다
期礪後賢兮用以褒崇 開國上洛兮公而寵異	후현을 격려함은 높이 쓰고자 포상함이고 상락군개국공으로 특별히 총애하여 공작을 내렸네	先賢後賢兮或同 彼時此時兮何異	선현과 후현이 혹 같기도 하니 이 때나 저 때가 어찌 다르겠는가
嗣子令公兮身襲越篇 季男學士兮門填桃李	말아들 영공은 월편을 이어 받고 막내아들 학사되니 문앞에 인재들 모여드네	今吾聖主兮德如高 適有隱士兮姓其李	지금 우리 임금의 덕은 요임금 같고 때 마침 은사 있으니 성은 李氏로다
諸孫烜赫兮盈庭 賓從權譚兮塞里	빛나는 여러 손자들이 뜰에 가득하고 환호하는 손님들로 마을이 들썩이네	立朝廷兮朝廷 還鄉里兮鄉里	조정에 들어가면 조정에서 벼슬하고 향리에 돌아가면 향리에서 지냈도다
摩肩獻壽兮趨蹌 行路言賢兮涕泗	앞 다투어 헌수하며 종종걸음으로 맞춰가고 길가는 사람도 공이 어질다 하며 눈물 흘리네	道緒不墜兮深於老莊 儒門復開兮比之洙泗	도통을 떨어지 않으니 노자 장자보다 깊고 유학의 문을 다시 여니 공자와 비교 되도다
宋有王荊公兮讓經綸 唐有郭汾陽兮羞終始	송나라 왕형공도 공의 경륜만 못하고 당나라 곽분양도 공에게 미치지 못한다네	既清淨兮終其終 何忠義兮始乎始	이미 청정함은 그 끝을 이루었으니 어찌 충의가 처음과 같지 않겠는가
歌騰朝野兮薦遐齡 話及漁樵兮誇盛事	송축 노래 조야에 드날리며 장수를 축원하고 어부와 초부도 칭찬하니 성대한 일을 자랑할만 하네	餐霞服氣兮有眞功 談經禮佛兮無他事	노을먹고 기를 다스림에 진실한 공덕있었고 경을 말하고 예불함에 막힘이 없도다
猿鳴鶴唳兮送歡聲 柏悅松欣兮陳賀意	원숭이 울고 학도 노래하며 환성을 보내고 잣나무 소나무도 기뻐하며 축하의 뜻 베풀어 주네	如我功名兮豈君心 如君德行兮是我意	나의 공명이 어찌 그대 마음이었는가 그대의 덕행같은 것이 곧 나의 뜻이로다
忠烈王 二十一年(一二九五) 十月		忠烈王 二十二年(一二九六) 二月 다음페이지 계속	

단모부 설명문

■ 단모부(旦暮賦)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1295년 8월에 오등작위(五等爵位)의 으뜸인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 공작(公爵)의 작위를 수여받은 것에 대한 축하의 글로서 동안거사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부(賦)이다. 이승휴는 서문(序文)에서 김방경을 뛰어난 재주와 덕행으로 충(忠)의(義)인(仁)용(勇)지(智)모(謀)를 모두 갖추었으며 위대한 장수, 훌륭한 재상, 뛰어난 외교관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킨 안사공신(安社功臣)으로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인물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이 · 벼슬 · 작위가 모두 높아 만세(萬世) 뒤에 성인(聖人)을 한 번 만난 것 같다고 칭송하면서 김방경의 행적을 요약하여 서문(序文)과 아울러 부(賦)를 지은 것이다.

■ 단모부 답부(旦暮賦 答賦)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은 이승휴(李承休)로부터 단모부를 받았는데 병환으로 4개월이 지난 1296년 2월에 답부를 보내며 이승휴의 삶과 행적 학문에 대해 평가하고 출처(出處)에 때를 잃지 않았음을 칭송하였다. 또 불교의 청정(淸淨), 유가(儒家)의 충의(忠義), 도교(道教)의 근원을 수행하는 이승휴의 삼교합일(三敎合一) 태도와 경지를 높이 평가하며 경서(經書) · 주역(周易) · 병서(兵書)를 통달한 문장체로 운(韻)에 맞춰 답하였다. 이승휴의 호는 동안거사(動安居士)로 불리고 있지만 또 다른 호 둔헌(遯軒)은 김방경 답부(答賦)에서 처음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1월 2일
旦暮賦碑建立委員會 共譯 · 書雲觀正公派荷堂公宗會 後援 · 安東金氏大宗會 謹啓

2022년도 안동 시제 향족대 (₩16,300,000-)

2백만원	【익】석한 - 대중회 회장 - 광진	2,000,000	1십만원 39명	【익】태용 - 대중회 부회장 - 용인 【군】광탄중중 - 파주 【군】군사공파중회 【군】장안중중 - 화성 【익】구회 - 참의공중중 - 수원 【익】영화 - 대중회 이사 - 대구 【군】재이 - 대중회 부회장 - 강진 【군】정회 - 광탄중중 - 구리 【군】일수 - 광탄중중 총무 - 파주 【문】윤만 - 파중회장 - 구로 【도】봉회 - 대중회명예회장 - 강남 【도】정중 - 사촌마을 - 의성 【익】정묵 - 대구종친회장 - 경산 【안정】흥기 - 파중회장 - 제천 【按】태용 - 판교공회장 - 여주 【按】용주 - 대중회이사 - 남양주 【부】춘식(영식) - 대중회이사 - 대구 【군】재영 - 광탄중중 - 구리 【익】이묵종친회 - 안산 【도】희윤 - 도평의공 종손 - 의성 【익】전침공중친회 【도】재수 - 전파중회장 - 의성 【도】정 - 수도권종친회장 - 영등포 【익】만천 - 【군】양천중중 - 강서 【군】병수(보명 길회) - 괴산 【전】안산.정남종친회 - 【전】관교 - 대중회부회장 - 용인 【대】태식 - 대중회고문 - 보성 【익】좌랑공중회장 - 고창 【제】평응 - 대중회이사 - 천안			3,900,000	
1백만원 3명	【군】준회 - 파중회 회장 - 파주 【按】형남 - 파중회 회장 - 강남 【정】정의공파중회	3,000,000						
5십만원 3명	【문영】문영공중회 - 안양 【군】승남 - 광탄중중회장 - 파주 【서】서운관정공파중회	1,500,000						
3십만원 7명	【판서】판서공중회 【부】부사공파중회 - 철원 【제】태헌 - 문영공중회 회장 - 제천 【제】규원 - 파중회 회장 - 괴산 【익】영수 - 파중회 회장 - 의정부 안동종친회 - 안동 안동김씨 골프회	2,100,000						
2십5만원	【개】이경 - 파중회 회장 - 파주	250,000						
2십만원 17명	【군】재옥 - 칠정문중 회장 - 파주 【전】춘교 - 판서공중회 회장 - 인천 【전】흥식 - 파중회 회장 - 廣州 【문】영환 - 충렬공기념사업회 회장 - 강남 【문】문온공파중회 【도】도평의공파중회 【대】태권 - 파중회 회장 - 보성 【제】제학공파중회 【按】태성 - 수도권중회 회장 - 김포 【按】태영 - 파중회 부회장 - 송파 【정】태석 - 파중회 회장 - 봉화 【익】성회 - 대중회 부회장 - 부여 【익】재용 - 대중회 고문 - 서초 【익】재남 - 대중회 고문 - 수원 【익】참의공중중 - 수원 【익】효소공중회 안동본연회(本然會) - 안동	3,400,000	5만원 3명	【대】재수 - 함평 【대】재갑 - 함평 【익】재택 - 대중회이사 - 논산		150,000		
				합계		16,300,000		
1십만원 39명	수원 · 화성종친회 【문】덕만 - 직제학공계 - 구리 【익】재영 - 대중회 고문 - 수원 【정】봉회 - 전 능동관리인 - 안동 【按】선회 - 대중회 고문 - 청주 청주종친회 - 청주 【제】수도권중회 【按】영만 - 대중회 고문 - 진천		물품찬조	【익】석한 - 대중회장	미니담요 180EA			
				【익】용세 - 대중회 고문 당진 신평양조장	제주 2박스	능동1,회곡1		
				안동종친회 및 부녀회	충렬공 제수 봉납			
				안동종친회	청소 및 환경정리	능동재사		

2022년 송의전 추계대제 봉행



- 일시 : 2022년 10월 2일 오전11시
 - 장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송의전로 382-27(아미리 7)
 - 제위 : 고려 4왕(태조 왕건, 현종, 문종, 원종)과 상락공 첨의령(僉議令) 김방경(金方慶) 중시조님을 비롯한 16공신
- 분헌관 : (書)김상호 대종회 고문
- 참예자 : 홍식 전서공파 회장(송의전 감사), (郡)태영 대종회 사무총장, (郡)재구 판서공 재무이사, (書)덕영 이사장. 각영 부이사장.

송의전(崇義殿)은 조선시대 1605년(선조 38년), 1727년(영조 3년), 1789년(정조 13년), 1868년(순종 2년)의 총 5차례에 걸쳐 개수와 중수를 함. 6.25 남침으로 건물이 전소되었으나, 1971년 송의전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 터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재건함.

- 정 전 : 4왕(고려 태조 · 현종 · 문종 · 원종)
- 배신청 : 16공신(북지겸 · 홍유 · 신승겸 · 유금필 · 배현경 · 서희 · 강감찬 · 윤관 · 김부식 · 김취려 · 조충 · 김방경 · 안우 · 이방실 · 김득배 · 정몽주)

송의전(崇義殿)의 통곡(痛哭)
(2022년 10월 2일 추계대제 참사기)

청암 김상호 / 대종회 고문(書)

1. 송악(松嶽)의 우렁찬 울음이
천이백오(1205)년 세월에 깎이어
연천 가을 하늘에 희뿌옇게 흩날린다
- 후삼국통일에도, 궁예의 무릎 꿇린 기상에도, 여진요동 정벌에도
권문세족의 무신정치가 울음을 삼키고
왜구의 침입과 여몽전쟁,
삼별초의 난과 홍건적의 난들에 기상이 꺾인다
왜구의 정벌로 국세가 기울어지니
송불(崇佛)도 효험(效驗)을 잃고 세월에 잠긴다
- 천삼백구십이(1392)년 나라의 문을 닫으니
삼십사(34)대에 흘린 눈물은 연천강(漣川江)이 되어 흐르고



- 끊어진 심장은 깊은 단애를 이루니
망국의 한이 어찌 이뿐이겠는가
- 능묘도 오롯이 지키지 못해 중음신(中陰神)이 되고
후사에 초라한 송의전에 사왕(四王)**만을 모시니
배신청의 충신***은 흐느껴
흐르는 연천강의 달밤을 맞는다
- 쉰 목소리에 흐느끼는 통곡은
사배(四拜)의 고두례(叩頭禮)를 청하고
떨리는 손으로 올리는 봉작이 입술을 축이니
망국의 서러움을 달래려는 듯 침묵만이 무겁다
2. 어즈버 서러움이 당신만이겠소
천구백십(1910)년 조선조가 망하여
삼십육(36)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도
힘겹게 힘겹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도
허리가 잘린 채
아직도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여기,
- 태양은 저만치 어둠을 밝히나
북서풍은 아직도 겨울을 녹이지 못하고
봄이어도 봄이 아닌 듯
아직도 푸른 깃발이 힘겹다
- 동족상잔의 피가 강이 되어 흐르고
동작의 통곡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는데
계절을 상실한 봄바람은 저만치 멀리
안갯속에 머문다
3. 흥망성쇠(興亡盛衰)로 천년도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성주괴멸(成主壞滅)로 망국의 한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국필아벌연후 인벌지(國必我伐然後 人伐之))
- 송의전의 통곡이 가슴에 맺히니
되돌아오는 발길이 무겁고
비 내리는 안갯속이 침침하니
백가쟁명의 이명만이 귓전을 때린다
- 어찌 되려는 가.....
이 민족의 기상으로 자유를 꽃피워야 하지 않는가.....



2022壬寅年 文英公(諱 恂)享祀 奉享

2022년 10월 31일(음 10월 7일) 월요일 오전11시 안양시 관양동 소재 문영공 할아버님과 제평군부인 양천허씨 할머니의 묘역에서 문영공종회 태헌 회장님을 비롯한 170여명의 참제 후손들이 모여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임인년 세일사를 奉享하였다.

문영공(휘 恂, 1258~1321) 할아버님은 안동김씨의 중시조 충렬공 김방경(忠烈公 金方慶)과 어머니인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冷平國大夫人 竹州朴氏)와의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배위는 제평군부인 양천허씨(齊平郡夫人 陽川許氏, 1265년~1332년)로 첨의중찬(僉議中贊)을 지낸 허공(許珙)의 둘째 따님이다. 자녀는 4남 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문숙공(文肅公) 김영돈(金永墩)이고, 차남은 상서(尙書) 김영휘(金永暉)이며, 삼남은 출가한 자은선사(慈恩禪師) 김사순(金思順)이고, 사남은 영삼사사 상락후(上洛侯) 정간공(貞簡公) 김영후(金永煦)이다. 장녀는 서원정씨[西原鄭氏, 청주정씨(淸州鄭氏)] 정책(鄭愷)이요 차녀는 남포백씨[藍浦白氏, 상당백씨(上黨白氏), 청주백씨(淸州白氏)] 백이정(白頤正)이고 삼녀는 별리가불화(別里哥不花)로 元의 좌승상 아흘반(阿忽

反)의 아들이다.

分定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태헌泰憲(提) 문영공종회 회장, 아헌관 영수榮秀(翼)파종회장, 종헌관 태성泰聖(按)수도권회장, 찬인 태신泰信(翼), 집례 태철泰喆(翼), 대축 용원容元(按), 진설 안회安會(翼), 봉로 재삼在三(提), 봉향 범식範植(按), 사준 형식亨植(翼), 봉작 용주容周(按), 전작 재권在權(翼), 시도 석응石應(提), 직일 재영在永(翼), 명예회장

등이 맡아 주셨으며 錫漢 대총회장 등 170여명의 많은 종친들의 참제가 있었다. 문영공종회 태헌 회장은 참제하여 주신 많은 종친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錫漢(翼) 대총회장은 충렬공 할아버님 시제에도 많은 참석과 성원으로 자리를 빛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가 있었다.

—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태철 —



2022년 문온공파 정기총회 및 금수단 세향 거행



안동김씨문온공파종회는 2022년10월16일(세째주 일요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8 금수단에서 2022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양간공 승택(承澤), 낙랑국부인 경주김씨, 상락군 묘(昴), 삼한국부인 여흥민씨, 문온공 구용(九容), 해평군부인 해평윤씨, 당성군부인 남양홍씨와 600여년 외손봉사해 온 척약재 외조부이신 문온공 급암 민사평(閔思平), 언양군부인 언양김씨 내외분 그리고 가양리 산 240-6에서 성천도호부사공 명리(明理), 계림군부인 경주이씨 세향이 거행되었다.

이 날 정기총회 및 세향은 근 2년여에 걸쳐 창궐하였던 C-19에 대한 정부시책 완화로 예천, 대구, 전주 등 경향각지에서 60여 많은 종친들이 참석해 주셔서 예년과 같이 활기를 되찾아 성황리에 거행할 수 있었다.

정기총회는 총무·재무·감사보고에 이어 임기가 종료된 회장과 감사 3명에 대한 선출이 있었는데 C-19로 못다한 사업을 다시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연임하여 제12대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의결하였다.

윤만 회장은 임기 중 추진할 사업으로 “①금수단 목단원 조성사업 ②『척약재학음집』 번역사업 ③학술 및 친목대회 개최 ④안동김씨 고택 현액 사업과 금수단 명의 이전은 복잡한 문제 해결의 추이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세향이 거행되었는데 이 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수 단			가양리 부사공			비 고
	성 명	계	직책	성 명	계	직책	
초헌관	김윤만	직	회장	김계만	직	부회장	
아헌관	김경회	참	부회장	김영기	사	이사	
종헌관	김현묵	사	이사	김태길	참	상무이사	
집례	김영윤	사	상무이사	김윤만	직	회장	
대축	김영환	사	고문	김영환	사	고문	
찬인	김신묵	직	감사				
좌집사	김왕용	직	상무이사	김왕용	직	상무이사	
	김용대	직	(별)이사				
우집사	김태형	직	(별)이사	김덕만	직	(별)이사	
	김형택	직	(별)이사				

— 문온공파종회 회장 윤만 —

정의공(正儀公) 향사 봉행

2022년 11월 6일(일요일)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32번지 정의공(諱, 哲) 사적비에서 시향이 있었습니다. 김태석 회장님을 비롯한 종친님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지만 조상 모시는 일에 함께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향 순서는 초헌관에 김태석 회장, 아헌관에 김경회 부회장, 종헌관은 김연회 종친의 순서대로 헌작 하였습니다. 시향후 음복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몇 년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 하여 파종회 임원진 선출도 미루어진바 차기 임원진 선출 건과 사적비 부근 토지 매각건 등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고 다음해 에는 정기총회가 개최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산 하였습니다.

— 정의공파종회 총무 김수호 —



익원공파 전침공(諱 宗潤) 세일사 봉향



2022년 10월 16일(陰9.21 일요일) 오전 11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선영에서 김준회 · 김영수 · 김재만 · 김재택은 산신제를 지내고

안동김씨 익원공파 전침공(諱 宗潤), 감찰공(諱 琛), 청안현감공(諱 善孫), 행형조좌랑공(諱 淡)의 세일사를 봉향하였다. 이날 김석한 대종회장, 김동회, 김재원내외분, 김일회, 김재훈, 김재만, 김영회, 김준회, 김연묵 내외분, 익원공파종회 김영수 회장, 김종빈 전침공회장, 김재택 내외분, 총무 김충식 내외분 등 후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제 봉향의 예를 다하고, 김석한 대종회장님의 인사말씀이 끝나고 전침공종회 종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종친간 돈독의 시간을 갖었다. 이날 분정은 초헌관 영수, 아헌관 일회, 종헌관 영회, 축관 성회, 집례 재만, 봉향 중빈, 봉로 연묵, 사준 동회, 집사 재택, 직일 석한

— 전침공종친회 총무 김충식 —

영의정 문경공(휘 수동) 세일사 봉향

2022년 11월 6일(일요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장등산 묘역에서 문경공종친회 종무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의정을 역임 하신 문경공 할아버님 향사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문경공은 휘가 수동(壽童, 1457~1512)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미수(眉叟), 호는 만보당(晩保堂).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김종숙(金宗淑)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김적(金積)이며, 어머니는 동부승지 안질(安質)의 따님이다.

1477년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성절사로 명나라에 가서 『성학심법(聖學心法)』 4권을 구해 왔다. 그 뒤 각 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1504년 47세에 이조판서에 올랐다. 갑자사화 때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고 우의정에 부임하였다. 이 때 중종반정에 참여해 좌의정에 오르고 정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해졌다. 1510년 영의정에 올라, 그 때 일어난 왜변의 진압을 총지휘하였다. 품성이 단정했으며, 청탁을 모두 거절하고 검약한 생활을 즐겼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분정은 초헌관에 용묵 (대종회 이사), 아헌관에 태근 (목사공 강화

중중 총무), 종헌관에 복술 (익원공파종회 이사), 집례는 정묵 (대구 종친회 회장), 대축에 태신 (대종회 이사)이 맡았다. 문경공종친회 종무회장은 우리 모두는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과 문중을 사랑하는 숭조상문(崇祖尙門)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종친간의 화목을 강조하는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끝으로 제주(祭酒)를 잊지 않고 춘추로 매년 2회 보내 주시는 당진의 신평양조장 용세 고문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익원공파 효소공계 장령공종회 선조님 세일사 봉향



2022년 10월 25일(음력 10.1 화요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선영에서 장령공(휘 湜) 선조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조님들의 세일사

를 봉향하였다. 이날 장령공종친회 김태홍 회장과 효소공종회 김운묵회장, 김왕희, 김성희, 김항희, 김명식, 김태인, 김재송, 김경환, 김태천, 김태걸, 김상희, 김창환, 김태원, 김재택부부, 총무 김태균 외 5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제를 봉향하고 장령공종친회 김태홍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종회에서 주관한 점심식사를 들며 종친간 돈독의 시간을 갖었다.

【분정】

- 산신제 - 태인, 재송, 경환
 - 세일제 - 초헌관 윤묵, 아헌관 태연, 종헌관 재택, 집례 태홍, 대축 태원, 봉로 상희, 봉작 왕희, 사준 창환, 직일 성희
- 장령공종회 총무 태균 -

익원공파 충민공종회 선조님 세일사 봉향



2022년 10월 23일(음력 9.28 일요일)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1길 5 소재 충민공(忠愍公) 재실에서 재택회장 내외분을 비롯한 30여 명

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사과공(휘 潔), 충의위전력부위공(휘 承碩), 청주목사 시충민공(휘 欽) 선조님을 비롯한 여러 조상님들의 세일사를 봉향하였다. 이날 충민공종친회에서 김정희, 김수찬, 김오식, 김수희, 김소희, 김인희, 김구희, 김삼희, 김태현 부부와 아들, 김재택 부부, 총무 김태인 부부 등이 시제를 봉향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종친간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분정】

- 산신제 - 인희, 수희, 태인
 - 세일제 - 초헌관 소희, 아헌관 삼희, 종헌관 수찬, 대축 수희, 봉로 인희, 봉작 태인, 사준 태현, 찬인 오식
- 충민공종친회 총무 김태인 -

승혜전 추향 능향대제 참예기



안동종친회 김재교 회장, 승혜전 이사는 2022년(신라기원 2079년) 9월 23일 경주에서 거행된 추향(추분) 능향대제(陵享大祭)에 참석하였다.

이번 능향대제는 신라 13대 미추왕과 17대 내물왕, 27대 선덕여왕과 29대 태종무열왕등 우리 김문(金門)의 특히 업적이 뛰어난 대표적인 선왕들을 기리는 제향으로 매년 추분을 정일로 하고 있으며, 신라김

씨(新羅金氏)의 능향 중 가장 유구한 전통적인 제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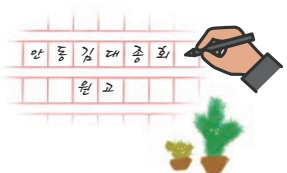
봉행은 승혜전 경모재 마당에서 헌집분정(獻執分定)을 한 후 사축과 헌관하례 개복 등을 한 뒤 대능원 안에 있는 미추왕릉으로 이동하여 추향대제를 지내고, 이어 내물왕릉으로 이동하여 추향대제를 지낸 다음, 점심 식사를 한 후 선덕여왕릉과 태종무열왕릉에서 각각 추향대제를 봉행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미추왕릉과 내물왕릉 추향대제는 경주김씨가 주관하여 헌관을 맡아 봉행하였고, 선덕여왕릉 추향대제는 여성들이 헌관을 맡아 봉행하였으며, 태종무열왕릉 추향대제는 강릉에서 온 강릉김씨들이 헌관을 맡고 주관하였다. 제향준비는 승혜전 참봉단과 경주김씨 경주종친회 회원 및 경주김씨 경주부녀회 회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다.

지난 봄 승혜전 춘향대제는 3월 21일에 승혜전에서 봉행 되었고, 계림세묘 진평왕릉 춘향대제는 4월 4일에 봉행 되었다.

- 김재교<kimjk31@naver.com> 안동종친회장 -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중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제 출 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연 락 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文肅公, 上洛伯公, 提學公 초혼묘 준공식 및 제막식

2022년 10월 16일(일) 천안 백전중중묘역 현장에서 많은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文肅公, 上洛伯公, 提學公 초혼묘 준공식 및 제막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파조이신 제학공(諱 益達)의 조부이신 문숙공(諱 永暲)은 고려 충목왕 4년(1348.7.13.)에 추하시어 풍덕 양동산에 산소를 모셨으나 실전되었고, 파조 제학공과 父 상락백공(諱 纘)은 산소에 대한 기록이 없어 1943년 음력 10월부터 이곳 도정사에서 시제를 지내기 시작했으며, 1962년 壬寅派譜編製所 主管으로 도정사 옆에 제학공파조이신 諱 益達의 設壇을 설치하였고, 그 후 1974년 백전 및 탑원 중중이 주관하여 祖父인 문숙공(諱 永暲)과 父親인 상락백공(諱 纘)의 設壇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설단 위치가 면적이 좁아 시제 참석자들이 참배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2010년 총회에서 초혼묘를 조성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하고 있던 중 2020년 총회에서 초혼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장: 태현, 총괄 및 자금조성: 규원, 묘소 조성: 규철, 기반조성: 만응, 석물조경: 평응, 비석비문: 용향, 고문: 남응, 태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안동김씨 백전묘역 상단을 立地로 정하고 조성비 모금을 시작하였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土木工事와 石物 제작 등 모든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으며 봉분은 고려시대 品階에 어울리는 사각 묘로 설치하였다.

조성과정은 2021년 5월에 산신제를 지내고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16일간의 공사 끝에 석축작업, 사성조성, 제절 터 파기, 진입로 조성과 배수로 작업을 완공하고 잔디 식재까지 1차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후 碑文 초안 작성 후 각계 원로의 監修 및 考証을 통하여 10여회의 수정과 교정으로 碑文을 작성하였다. 비문 완성 후 묘태석과 비석 3기, 촛대석1조, 문인석 1조, 상돌, 양안석1조등 석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봉분 잔디등 식재를 동시에 시공하였다.

2021년 12월에 제학공 총회에서 제학공파종회 태현회장이 문영공회장으로 추대 되자 규원 사무국장이 제학공파종회장이 되었으며, 초혼묘 조성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초혼묘 조성에 관여하고 있던 재삼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후원금 모금을 꾸준히 하여 마무리 공사 및 준공기념비를 세우고 드디어 이날 비석 개막식 및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날 준공식은 사무국장의 사회로 규원 제학공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비석 제막식을 먼저하고 조상님께 고유행사를 거행하였다.

告由文은 운철이 낭독하였고 格式에서 벗어나 참석한 宗人 모두 술잔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어 태현, 규원, 남응, 만응님이 공로패를 받았고 명식님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규원 제학공파 회장이 경과보고를 하였고 태현 문영공종회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남응 전대종회장, 형남 안렴사공파 회장, 선회 前 안렴사공파 회장등이 축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공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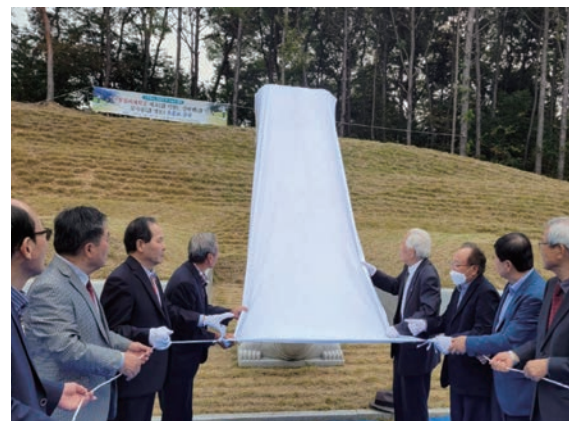
竣工式은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참석한 宗人 모두 진지하고 자부심이 가득하였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11개 중중이 5,300만원, 개인 88명이 5,956만원, 전체 성금액 1억 1,256만원이 모금되었다. 총 지출액은 약 1억 1,194만원으로 약 69만원(이자 7만원포함)이 잔액으로 남았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感動한다’고 했지만 모두 후원금으로 조성했는데 어찌 이리 잘 들어 맞았는지 신기할 정도다. 아마도 선조님들께서도 후손들의 정성을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모든 종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면 선조님들의 높은 德望과 厚德을 이어받아 子孫萬代 귀감이 될 것이다.

—제학공파종회 사무국장 재삼(在在)—



2022년도 제1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참석



드에서 우리 안동김문도 깃발을 들고 입장하였다.

2022년 10월 8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34번지 뿌리공원 일원에서 7~9일까지 ‘제1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각 성씨 문중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중 퍼레이

올해 축제는 ‘효로 통하는 세상 효통1번가’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개최됐다. 축제 첫째 날 샌드아트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효심뮤직페스티벌’에 찬포배기 이찬원, 박기영의 축하공연과 함께 라이브효심 불꽃놀이, 낙화놀이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3일간 여정을 열었다.

우리 안동김씨에서는 논산종친회 총무 김재승·김명식씨, 부여장령공종친회 김돈회씨외 9명, 대전종친회에서 김태식씨, 전침공종친회에서 김재택씨 부부가 개막행사에 참석한 뒤, 이어서 안동김씨 조형물을 돌아보고 기념사진 촬영후 식당에 모여 즐거운 담소로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논산종친회 총무 김재승(익) —

제3회 충무공 김응하 장군 탄신 442주년 기념 백일장 · 사생대회 시상식



철원포충사(원장 전현일)는 19일 포충사 경내에서 제3회 충무공 김응하 장군 탄신 442주년 기념 백일장 ·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3회 공모전 김응하장군 고유례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공모전 경과보고, 수상자 시상, 전현일 원장의 환영사,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축사, 기념촬영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공모전

이전 공모전(1회 47건, 2회 87건)보다 많은 269건(명)이 공모전에 참가했다.

초등부 감상문(수필) 부문 7명, 시 부문 7명, 시화 부문 3명, 그림 부문 14명, 중 · 고등부 감상문(수필) 부문 1명, 일반부 감상문 · 시 · 그림 부문 7명, 뮤지컬 시나리오 · 음악 부문 2명, 지도 교사상 4명 총 45명이 수상했다. 전현일 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시상식이 성황리에 열려 기쁘다. 3회째 맞는 이 대회가 이전보다 응모 건수도 많아지고 백일장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려 통일 한국 중심지로 철원이 우뚝 서길 바라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 이번 추모 백일장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철원포충사는 1665년 충무공 김응하 장군은 모시는 사당으로 현재 철원을 화지리에 소재하고 있다. 1871년(고종8) 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 때에도 특별히 존속되었다. 건물은 6·25전쟁 때 불타버리고, 현재는 김응하장군묘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5호)만 남아 있다.

—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

철원군, 제20회 김충무공 대상에 최무재 중령 선정



강원 철원군은 최근 철원출신인 조선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얼을 계승하기 위해 김 충무공 대상 위원회를 개최했다.

매년 대상자를 철원군 주둔부대의 대대장급 현역 군인에게 시상을 해온바 올해 제20회 김 충무공 계승 대상 수상자는 최무재 중령

제6사단 88포병대대장이 선정 됐다고 5일 밝혔다.

최 중령은 육군 제6보병사단 88포병대대장으로 복무중이며 지난

해 10월 6사단 포병대대장으로 보직돼 국토방위에 남다른 열정과 군인 정신으로 부대를 지휘해 왔다. 특히 포병여단에서 작전과장 보직 시 군단 선봉여단 및 교육훈련 우수부대로 선발되는 과정에 사기진작 등 많은 공을 세웠으며 지난해 대대장 부임 후 각종 대민 지원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민 · 관 · 군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안림사공과 용주(容周) 이사 대중회에 복합기 기증

2022년 10월 13일(목) 오전 11시 사무용품 기기를 운영하는 안림사공과 용주(容周)씨가 300만원 상당의 교세라(kyocera) 복합기를 대중회에 기증했다. 금년하반기에 새로 대중회 이사로 선임된 용주이사는 금년 57세로 안림사공과 도정공(都正公) 휘 공식(公飮)의 후손으

로 여주가 고향이고 현재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다. 용주이사는 지난 9월에 대중회를 방문했을 때 작동불능인 오래된 복사기를 보고 교체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날 자동차에 실고와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복사기는 장기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토너를 가득 장착하여 연결하고 흰 복사기는 폐기물로 수거해 갔다.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주거/사무실/상업 공간 인테리어

A done Design

에이던 디자인

대표 / 실장 : 김 태 환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7길 13, 오피스 B동 1217호
(문정동, 힐스테이트에코송파)

TEL : 02-6956-3237
FAX : 02-6956-3233
E-mail : adone-design@naver.com
www.adone-design.com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총령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열린손해사정법인

www.yeolrin.co.kr

손해사정사 김 재 민
전)삼성화재 보상과 근무

우)08023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1 (세양빌딩 2F)
Tel : 02-855-4973 (직통)FAX : 0504-252-8845
M : 010-3362-8845 E-mail : j.min.kim@yeolrin.co.kr

교통사고시 소독, 과실, 장해, 향후치료비, 정점사항 등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산재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관계검토

교통사고시 고철이나 인대파열로 수술한 경우 장해보험금(지급율 3%~100% 또는 1급~6급)을 검토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장해진단서 발급방식이 McBride식, AMA식,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암 · 화재재해 · 교통사고 · 후유장애 · 국가유공자 국가장애인등록상당 · 산재사고

충무공 김시민장군 진주대첩 승전 귀향 행차 및 고유제 거행

10월 2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탄신기념 문화제 개최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 스님, 이하 기념사업회)가 천안이 낳은 임진왜란의 영웅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승전 귀향 행차 및 탄신기념 고유제를 26일 아우내 장터 일원과 장군의 유허지 생가에서 엄숙하게 거행했다.

이날 장군의 승전 축하 퍼레이드에는 국방부 취타대와 천안시승마협회의 마상 기사, 한마음고교 학생들의 부대행렬이 이어져 그 장엄함을 더했다.

마침 병천 5일장의 장날인 관계로 모인 인근 시민과 상인들, 병천초 학생과 유치원생들이 승전 행렬에 대해 열렬한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장군은 임진왜란의 전황을 크게 바꾼 진주성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후 시체 속에 숨어있던 왜적의 흉탄에 전사함으로써 생전에 행하지 못한 승전축하 귀향 행차를 기념사업회가 재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승전축하 행렬이 병천초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하에 병천초를 출발해, 아우내 장터를 통과하면서 승전의 소식을 고향에 알리고 기쁨을 백성과 함께 나누는 의미와 감동을 가졌다.

이어 생가지에서 장군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후손과 백성들

이 하나로 어우러져 장군의 충절의 정신을 계승하기를 다짐하며 장군의 468주년 탄신을 기념하는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고유제에서 초헌관을 황선조 선문대총장, 아헌관을 이인국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부회장, 종헌관을 장호영 동남구청장이 맡아 제사를 받들었다.

천주평화연합(UPF) 대전·충청지구 유경득 회장은 봉행사에서 “김시민 장군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임진왜란에서 진주성대첩 승리를 통해 한반도를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지켜온 나라를 우리 후손들은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 자랑스런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법혜 회장은 “김시민 장군께서 순국하신지가 430주년입니다. 전쟁터에서 순직을 하셨기 때문에 고향에 와보시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장군님을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모두 위대한 충무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 김용부 기자 cmni@hanmail.net —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제6회 전국 통일문예작품 공모 심사결과 발표

일반부 대상 장희(서울), 학생부 대상 손보민 서울 보인고.



충무공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가 제6회 전국 통일문예작품 공모 심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전국 통일문예작품 공모는 천안이 낳은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웅 김시민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특히 청소년의 문예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전국 단위 문학행사이다.

충청남도과 천안시의 지원 속에서 교육부, 통일부, 충남교육청, 한국문인협회 등이 후원한 금년 공모

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반부 50편, 학생부 130편 총 180편이 응모되어 심사 결과 4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공모사업을 주최한 김법혜 스님 충무공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 회장은 “장군의 충절과 불굴의 호국정신 선양을 통하여 통일준비를 위해 마련된 문예작품 공모에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과 학교 단위 응모가 이루어져 예년에 비해 접수가 늘어났고, 또 작품 수준도 높아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심사결과 통일부장관상인 일반부 대상에는 장희(서울시)의 ‘충무

공의 심장 우리들의 꿈’이, 충남청도 교육감상인 학생부 대상에는 손보민(서울 보인고)의 ‘김시민을 기억하며’가 차지, 상금 과 부상을 각각 받았다.

일반부 최우수상에 김태현(천안), 전대원(전남) 씨가 충남도지사 상을, 학생부 최우수상에 정민아(천안 환서초), 최희현(대전 외국어고), 최서현(천안 소망초), 홍준표(천안 백석초), 최예현(소담중)이 충남청도 교육감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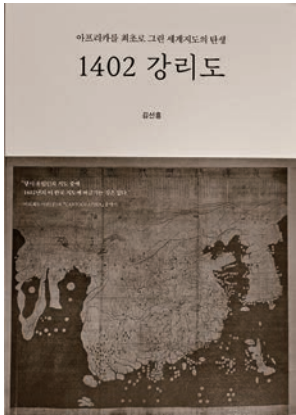
이밖에도 우수상에는 천안시장상과 천안교육장상이, 장려상에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과 기념사업회 회장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41명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주연화 심사위원장은 응모작 대부분이 이 시대가 갈망하고 있는 통일 문제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절의 애국 정신을 새롭게 제조명하는 주옥같은 원고들이었으나 수상 대상에 한계가 있기에 부득이 우열을 가릴 수 밖에 없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효정신과 진주대첩이 이시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무게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시상은 10월 2일(일) 오후 2시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제468주년 기념 문화제’ 행사와 병행해 열리게 된다.

— 법회스님 —

익원공 김사형(金士衡) 선조님께 『1402 강리도』 고유제를 올리다.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세계지도의 탄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김선홍 저(著) 『1402 강리도』라는 책이 발간되어 2022.11.07.(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49 익원공 김사형(金士衡) 선조님 묘역에서 고유제가 있었다.

이날 고유제에는 저자와 익원공파종회 영수회장, 태연총무를 비롯하여 채용, 재영, 태용, 태철, 태신, 우식과 안사연 영환, 영운, 재향, 윤만, 발용, 태우, 태영 등 16인이 참석하였다.

『1402 강리도』란 태종 2년(1402)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로 불리고 있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지도를 당시 좌정승 김사형과 우정승 이무(李茂)의 주관 하에 김상 이회(李薈)가 그렸기 때문에 저자의 간곡한 뜻에 따라 익원공 묘전에서 고유제를 올리게 된 것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이름을 풀이하면 혼일(混一)은 ‘합해 놓은’, ‘많이 모아 놓은’,이란 뜻이고, 강리(疆理)는 ‘땅’, 역대(歷代)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온’, 국도(國都)는 ‘나라의 도읍지까지 적어 놓은 지도’라는 뜻이다.

이러한 세계적 유산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안타깝게도 그 원본은 전하지 않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본도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교토의 류코쿠(용곡)대학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3개의 『강리도』가 더 있지만 이 복제품도 모두 일본에 있어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 등 왜군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이찬 교수가 모사한 그림이 서울대 규장각에 처음 보존된 후 복제품이 국립박물관 등 몇 곳에 전시되어 있다.

이 지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인데 그 500주년을 기념하여 1991년 말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다.

이 지도가 왜 그렇게도 세계사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양촌 권근(權近)이 지은 발문에 이 지도를 그린 해가 1402년인데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처음 발견한 것이 1488년으로 86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 유럽인들은 그 때까지만 해도 사하라사막까지만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남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희망봉을 발견하기 86년 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완전한 아프리카 대륙과 그 아래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다고 지도를 그렸으니 전 세계 지리학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한 만한 유산이 훈민정음, 직지(直旨)와 더불어 이 『강리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강리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 또한 부진하다. 그래서 안동김씨역사연구회는 2019. 3. 이 『강리도』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과 교토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다행히 류코쿠대학본은 실물 크기의 확대 사진 조각 1,000여개를 찍을 수

있었고, 100년 전의 사본인 교토대학본은 실물 크기의 전체 사진을 찍어 입수할 수가 있었다. 안사연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6개 사본을 정밀 검토하여 완벽한 지도를 재현해 내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일은 『금석집첩』에 이은 우리 문중사에서 두 번째 이루는 쾌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로 저자 김선홍님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칭다오, 오사카,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다음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지내신 전문 외교관이다.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외교관 친구들로부터 한국인이 세계적 유산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모른다는 질책 아닌 질책을 받고 은퇴 후 여생을 이 지도 연구에 바치고 있는 멋진 분이다. 끝으로 저자 김선홍님의 고유문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 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장 김윤만 —

익원공님 영전에

서기 2022년 11월 7일 광산인 김선홍이 익원공 김사형 선생 묘전에 아뢰옵니다. 공께서 지금으로부터 꼭 620년 전에 만드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한 책을 오늘 영전에 바치게 되오니 무한한 감사와 감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태종 2년 음력 8월에 완성된 이 지도는 뒤이어 창제된 훈민정음과 함께 우리 겨레가 가장 융성했던 한 때를 이끌고 동행했사옵니다. 하오나 『혼일강리도』의 웅혼한 기상과 깊은 지혜를 이어가지 못한 후손들은 지도가 나온 지 190년 만에 왜병에게 유린당했고 지도마저 빼앗기게 되었사옵니다.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잊혀 있던 『혼일도』가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세계무대에 출현한 것은 1991년 말 미국 워싱턴의 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콜럼버스 항해 500주년 기념전시회에서였나이다. 다시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11월 지도는 저 멀리 남아공의 전시회로 행차하였습니다. 지금 남아공 국회에는 공께서 만드신 지도가 소중하게 모셔져 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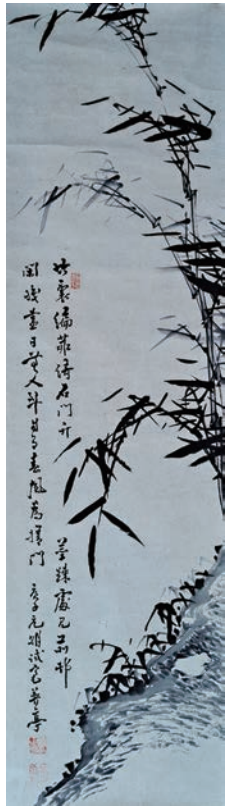
1994년 미국에서 나온 명저 『지도의 역사』 아시아편, 2007년에 유네스코에서 나온 프랑스 어본 『인류의 역사』 제4권은 혼일강리도를 표지에 실고 있사오며 일본에서는 벌써 연구서가 두 권째 나왔나이다. 최근 2022년 3월 19일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명한 갈릴레오 박물관 Museo Galileo에서는 최고의 강리도 동영상을 올려 영어, 이태리어,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어 모든 세계인이 어디서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관람할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600년 세월의 물살에 씻겨 더욱 은은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공의 『혼일강리도』는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나이다. 오늘 여기 부복한 저희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영전에 올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를 느낍니다. 하오나 지도의 모국은 여전히 외딴 섬처럼 고요하고 후손들은 눈을 뜨지 않고 있나이다. 묵하 천하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에 우리 겨레는 갈라져 있으며 반목이 깊어가고 있사옵니다. 천하에 경계선 한 줄 곳지 않은 『강리도』와 영령 전에 부끄러울 따름이옵니다. 이러한 차제에 한 후생이 천학비재를 무릅쓰고 책을 낸 것은 오로지 『강리도』를 선양하고 선조들의 위업을 기리고자 함이옵니다.

어려운 때를 당하여 영기어린 혼일세계도를 되살려 분열을 치유하고 광대한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익원공 영령이시어 부디 저희를 호령하고 이끌어 주소서. 존경하옵는 선생님 묘전에 간소한 주과포(酒果脯)를 올리면서 이 책을 헌정하오니 가납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바치오며...

2022년 11월 7일 후생 올림.





보정 김정회 묵죽도

죽리(竹裏)

竹裏編茅倚石門 죽리편모의석문
竹莖疎處見前邨 죽경소처견전촌
閑眠盡日無人到 한면진일무인도
自有春風爲掃門 자유춘풍위소문

대숲에 띠집 짓고서 돌문에 기대어 있자니
성근 대나무 사이로 펼쳐진 마을이 보이네
온종일 누워 잠을 자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봄바람만 문 앞을 쓸고 지나가네.

• 지은이 : 이섭(李涉)

중국 당(唐) 나라 때 시인으로 낙양(洛陽, 河南) 사람이다. 호는 청계자(淸溪子)이다. 문집 2권이 있었지만 없어지고, 『전당시(全唐詩)』에 시 1권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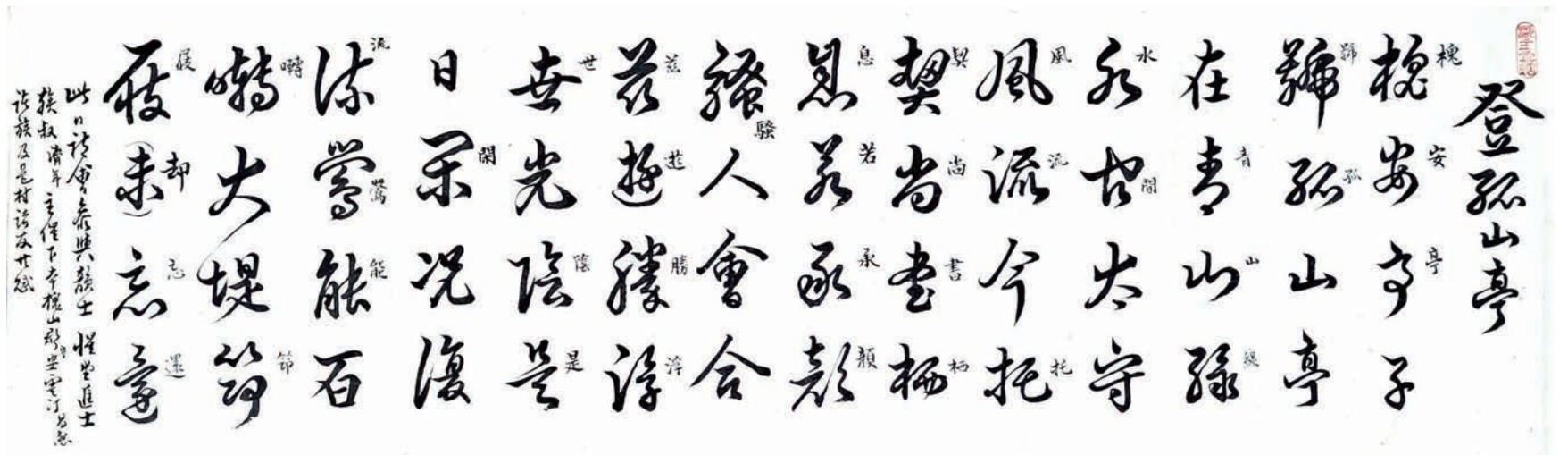
보정(普亭) 김정회(金正會, 1903~1970)선생의 묵죽도는 원래 8곡 병풍으로 제작되었는데, 그중 6번째 폭을 충렬공기념사업회 김영환 회장이 소장하던 것을 필자에게 선물로 주어 소장하게 되었다.

화폭의 칠언 절구는 봄날의 흥취를 읊은 당(唐)나라 시인 이섭(李涉)의 시 “죽리(竹裏)”를 활달한 초서(草書)로 보정선생이 쓴 것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보정선생은 종조부 항재(恒齋) 김순묵(金純默)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고 성균관대학교 전신인 명륜전문학원에 입학하여 석학들과 학문을 연마했다.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 문하에서 그림과 글씨를 익혀 대나무 그림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연연당문고(淵淵堂文稿)》가 전한다.

—사무총장 김태영—

옥천시편 첩(玉泉詩篇帖)



登孤山亭(등고산정1) - 김구호(金龜浩2)

槐安亭子號孤山 (괴안정자호고산) 괴산의 정자를 고산이라 부르고

亭在靑山綠水間 (정재청산녹수간) 정자는 청산녹수 사이에 있다.

太守風流今托契 (태수풍류금탁계) 태수3)의 풍류는 지금 詩契를 맺었고

尙書栖息若承顏 (상서서식약승안) 유상서4)의 별장을 승안5)한 것 같도다

騷人會合茲遊勝 (소인회합자유승) 글하는 사람의 회합은 이 승정의 유람이요

浮世光陰是日閑 (부세광음시일한) 뜬 세상의 광음은 이 날이 한가하도다

況復流鶯能百轉 (황복류앵능백전) 하물며 피꼬리가 능히 백번을 지저귀니

大堤節履却忘還 (대제절이각망환) 제천으로 문득 돌아가는 것을 잊었노라

1) 고산정 : 문신 유근(柳根, 1549~1627)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인 1596년(선조 29) 괴산을 제월리에 세운 정자로 처음엔 만송정이라고 했다가 광해군 때 국정의 어지러움을 피해 이곳에 은거하면서 고산정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정자는 맑은 냇물을 볼 수 있도록 벼랑 위에 세웠다. 앞면 2칸. 옆면 2칸 규모이며,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정자 동남쪽에 있는 제월대 위에서 보면 이 산의 수려한 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충청북도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었다.

2) 김구호(金龜浩, 1837~1903)

자는 기서(箕瑞), 호는 옥천(玉泉), 본관은 안동(安東), 충무공 김시민(金時敏)의 후손이며 김하년(金夏年)의 아들로 제천 두학동 가창산(歌唱山) 장치미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정재 유치명(柳致明)을 사사하여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미 30여세에 큰스승으로 존경 받았다. 제자인 김용수(金龍洙)와 김영호(金永浩)는 사마시, 김

필현(金弼鉉)은 알성시에 각각 합격하였다. 고종조 문신 심상훈으로부터 출사할 것을 천거 받았으나 고사하였다. 을미의병 때, 제천 의진에서 참좌로 활약하였으며, 문학으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호서의병사적(중의록)》

3) 태수 : 괴산군수 안창렬(安昌烈, 1847~1925)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순가(順可), 호는 동려(東旅). 유주목(柳躊睦, 1813~1872)의 문인이며, 천거(薦擧)로 관직에 올라 1882년 임오군요(壬午軍擾)에 십조소(十條疏)로 의정(義政)을 밝혔다. 여러 고을 현감을 지내고, 괴산군수(槐山郡守)가 되어 선정하였다. 저서로는 『동려문집(東旅文集)』이 있으며 문집 권4에는 금강산 유람에서 체험한 사실을 기록한 「해산기행록(海山紀行錄)」이 있다.

4) 유상서 : 스승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

경북 안동 출신 문신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성백(誠伯), 호는 정재(定齋).

5) 승안(承顔) : 남의 안색을 살펴 비위를 맞춤

※이 옥천시첩은 제학공과수도권종회 용식(龍植) 회장의 고조부(휘 귀호)이신 옥천선생의 시첩으로 지난번 대중회에 기증한 고문서중 하나이다. 시고 말미에 괴산군수 안창렬(安昌烈)이 주관한 고산정(孤山亭) 시회(詩會)에 족속 진사 김제년(金濟年, 1846~1901) 및 읍촌의 운사(韻士) 20여인이 참여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시첩에는 《등고산정》외에도 《체류능촌(滯留陵村)》등 다수의 시편이 전해지고 있다.

—사무총장 김태영—

충렬공 김방경 일본 원정사(遠征事) 소설

《풍도(風濤)》의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



노력하는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불만을 이야기 한다. 뭐라도 좋으니 몰두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일본작가 이노우에 야스시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탈락하면 지인들에게 소탈하게 술을 대접하면서 “이 술이 노벨상이오”라면서 잔을 비웠다고 한다. 그는 항상 뽀빠에 몰두하며 작품을 썼다. 다케다 신겐을 그린 TV 드라마 ‘풍림화산(風林火山)’도 그의 원작을 토대로 했는데 일본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국사에도 폭 빠져 11세기 중국을 재구성해 막고굴(莫高窟)에 숨겨진 불교 보물 발굴 과정을 그린 ‘돈황’(敦煌), 타클라마칸 사막 동쪽 로프노르 호수의 작은 오아시스 왕국 누란의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다룬 누란(樓蘭), 8세기 나라(奈良)시대 승려 4명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불교경전과 예술품들을 일본에 반입한 일을 묘사한 덴표의 용마루(天平の薨)같은 불후의 명작을 써냈다. 이들 작품은 고고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소재들이라 놀랍기만 하다. 그는 한국의 고려시대를 다룬 《풍도(風濤)》도 남겨 국내에도 《검푸른 해협》이란 이름으로 번역돼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이노우에 야스시는 취재차 1963년에 한국의 강화도, 부산, 울산, 경주, 마산 등지를 세 차례나 답사하고 고려사를 탐독했다고 한다.

이노우에 야스시의 작품전개 방식은 아주 특이하다. 여몽 연합군의 고려 측 장군으로 일본정벌에 나서는 고려의 명장 김방경(金方慶)을 비롯해 고려 왕 원종(元宗), 충렬왕(忠烈王), 고려를 괴롭힌 몽골의 쿠빌라이, 고려인이면서 원나라 편에서 출세해 일본원정에서 몽골-한족군의 대장이 된 홍다구(洪



茶丘)등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면서 정작 일본인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일본인 이지만 역사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다. 이노우에 야스시는 작품 집필을 위해 고려왕이 피신했던 강화도와 여몽 연합군 전단이 닳을 올렸던 경상남도 마산의 함포항 등을 심층 취재했고 몽골을 ‘원구(元寇)’로 기술했다. 고려가 비록 몽골과 연합해 일본정벌에 나섰지만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 고려가 1차적 피해자였으며 일본보다는 고려의 국난이라는 시각을 밝힌 바 있다. 또 일본정벌 실패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는 가미카제(神風) 태풍이 거론되지만 그는 몽골군이 수군을 갖고 있지 않아 해전 경험이 전무 한데다 고려에서 건조된 선박이 튼튼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라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풍도(風濤), 돈황(敦煌), 누란(樓蘭)같은 이노우에 야스시의 작품은 소설이지만 역사의 촘촘한 팩트에다 픽션을 잘 녹여냈으며 편협한 민족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역사소설은 철저한 고증이 있어야만 역사소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뇌내망상일 뿐이다. 소설을 쓴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일부 국내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 이노우에 야스시(いのうえ やすし, 井上靖, 1907~1991)

소설가로 명성이 있어, 몇차례 노벨상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많은 작품의 저서가 출간되었고, 영화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 1989년 제42회 노마문예상 《공자》
- 1984년 아사히상
- 1976년 일본 문화훈장
- 1964년 제15회 요미우리 문학상 《풍도》

■ 발행사항 : Freedom & wisdom, 2019

■ 출처 : 도서, (메이지유신을 이끈) 카게무샤 : 막후의 인물

■ 박상후 약력

- 1968년 경기 여주출생.
-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석사
- 전 MBC 베이징 특파원, 시사제작국부장, 국제부장, 문화부장, 전국부장
- 월간조선 객원칼럼니스트.

작가프로필



저자 김법혜 스님



- 스리랑카 국립 팔리대학 명예철학박사
-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장
- (사)세계예술교류협회 총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의 회장
- (사)한국불교총연합회진흥회 부총재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중동창회부회장
- 대한민국평화통일국악경연대회 대회장
- 충청일보, 중앙일보 등 칼럼니스트



신간안내

김법혜 스님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칼럼집 발간

금과옥조로 삼아도 좋을 명칼럼



칼럼니스트 김법혜의 민족통일불교중앙협회 의장께서 수년간 충청일보 충청산책 코너에 발표한 글을 모아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제호로 두 번째 칼럼집을 출간했다.

여러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 성실히 봉사하며 불가에 적을 둔 스님이자 유명 문사로서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으로 지역사회에 큰일을 해내시는 우리 사회의 사표로 그동안 심도 있는 주제와 다양한 소재로 세상사를 두루 다루며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필치로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불의한 일에 경종을 울리며 지면에서 중형무진으로 부조리를 난타하는 막힘없고 거침없는 필봉의 위세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글쓰기는 일련의 수도 과정과도 같은데 어떤 글을 쓰더라도 깊은 사고와 감정의 절제가 따르는 정통의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신문칼럼은 우수한 문장력은 물론이고, 폭넓은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사실을 직시하여 분석해 내는 예리한 혜안이 있어야 한다.

칼럼집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는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사안을 직접처럼 짚어가며 이야기를 개진해나가는 필력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삶의 경륜과 지혜가 문장 곳곳에서 묻어나는 유려한 문체에서 김법혜 의장의 필력을 기능하게 되고, 공감 가는 내용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이다.

표준식

- 1991년 『월간문학』 등단
- 장편소설 『자전거 바퀴살』, 『슬피디 슬픈 일』
- 소설집 『영원으로 가는 기차』, 『대학로의 작가들』
- 현) 소설가, (사)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2022년도, 대중회비 납부협조 요청

대중회 운영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으로 찬조금을 협찬하여 주시는 종친여러분, 그리고 대중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친여러분의 성금과 회비는 대중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대중회 회비를 깜박 잊으시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임원 종친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예금주 : 안동김씨대중회



安東金氏大宗會事務處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02)2244-3717 fax 02) 2243-1073